

# “생활불교 운동으로 재도약”



**인터뷰** 창종 40주년 맞은 불입종 총무원장 경암 스님

및 신도교육 내실화, 학생·어린이법회 개설 등 포교활성화 방안이 담겨있다. 불입종은 또 <기초교리> <중도신행요집> <사경집> <신앙수기집> 등을 발간, 문서포교에 적극 나서는데, 창종의 대외 홍보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부산·경남 총무원을 분리하고 경북과

교에 앞장서 온 불입종은 그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찰마다 한문교실, 사경교실, 글짓기교실과 같은 어린이 특수법회를 운영하고, 어린이법회가 개설돼 있지 않은 사찰에 대해서는 종단차원의 지원을 통해 법회를 개설토록 할 방침이다. 불입종은 창단 산하 130여 사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린이법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어

활동에 나설만한 조직도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창단 안팎으로부터 포교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1965년 태허 스님이 창종한 불입종은 ‘불지지계 개시오입(佛之知見 開示悟入)’, 즉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모든 중생에게 열어 보여서 깨닫게 하고 지견에 들게 한다는 종지(宗旨)를 바탕으로 하면서 <묘법연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생활 속 불법 실천’을 주창해왔다.

## 1사찰 1봉사단체 결성·가족법회 창립 어린이 법회 전국 130여개 사찰로 확대

전남에 총무원을 신설하는 한편, 각 총무원 산하에 1개의 사찰을 개방형 기도처로 지정, 일반인 포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종조건 건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창종조 태허 스님의 유품을 수집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태허 스님이 주창한 ‘생활불교’ 이념을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어느 종단보다 어린이 포

교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불입종이 이렇게 다각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불입종이 내세우고 있는 ‘생활불교’ 이념이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데다, 창단의 정체성 확립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불입종이 이같이 판단하게 된 데에는 ‘자신감’이 작용하고 있다. 불입종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승려와 신도들의 자질이 향상됐고, 포교와 사회

활동에 나설만한 조직도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창단 안팎으로부터 포교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아왔다. 1965년 태허 스님이 창종한 불입종은 ‘불지지계 개시오입(佛之知見 開示悟入)’, 즉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모든 중생에게 열어 보여서 깨닫게 하고 지견에 들게 한다는 종지(宗旨)를 바탕으로 하면서 <묘법연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생활 속 불법 실천’을 주창해왔다. 사찰수와 승려수(350명)로만 보면 한국불교 10대 종단 안에 들 정도의 규모다. 그러나 포교 및 사회활동 보다는 신도교육과 조직정비 등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불자들과 일반 대중에게 주목받지 못했다. 경암 스님은 “사실 우리 종단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활동범위를 넓히고 인재를 양성해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종단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한명우 기자

# 조계종 교육 기초2(1)년, 기본 4년으로

승개추 개선안 확정...전문교육은 5년

조계종 승가교육제도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승개추)가 기초교육 2년(또는 1년)+기본교육 4년+전문교육 5년제의 승개추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승개추는 3월 11일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논의의 바탕으로 마련된 3번째 제도개선 초안을 검토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승개추는 오는 4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반기 중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은 기초·기본 교육의 교육연한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교육원은 기

초·기본 교육을 ‘2년+4년’ ‘1년+4년’ ‘2년+3년’ ‘2년+2년’으로 상정했으나 동국대와 중앙승가대의 정규학제가 4년인 점을 감안, 기본교육은 4년이 돼야한다는 대다수 스님들의 주장에 따라 ‘2년+4년’ ‘1년+4년’을 원칙으로 교육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이어 전문교육도 △학림과 율원은 2년 △승가대학원은 은혜사 3년·운문사 2년 △전선선원은 의무 4안거+4안거(4년) △대학원은 석사 2년+박사 3년 △특수학교는 어산 본과 2년+전문어산과 3년 과정 수료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학원이 전문교육까지 미치는 데는 최소

10~11년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본교육 개선과 관련해 교육기관 정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교육원의 당초 동국대학의 기본교육 기관 해체를 상정했으나 동국대 교수 보강, 중앙종회의원 항재, 기본선원장 지원 스님 등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기존의 교육법 부칙3조(기본교육기관에 동국대 포함)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원의 총재학인원에 대한 제한선도 30명으로 정해졌다. 현행 승가대학원이 최저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강화된 것이다. 승개추는 이를 통해 향후 사미 8곳, 사미니 4곳 정도로 전문강원을 통합하기로 했다. 조계종 기자

# 천태종 신도조직별 연수

자질 향상·특성 강화...결속다져

천태종이 청년회 어린이회 지도교사들의 연수와 부문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조직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천태종 중앙청년회는 4월 2~3일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에서 천태종 중앙청년회 임원 및 청년회장단 단합법회를 개최한다. 청년회 지도자들의 상호교류와 지도력 향상을 위해 열리는 이번 단합법회는 각종 특강과 청년회 운영 사례 발표, 중앙청년회에 바라는 점 발표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 총무원 교무부는 남부지역 25

개 사찰의 천태종 어린이 체육대회를 준비중이다. 4월 24일 대구시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체육대회는 천태종의 역군이 될 어린이 불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고 단결심과 협동심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043423-7100) 이에 앞서 천태종은 학생회와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도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3월 19~20일 구인사 인광당에서 신앙체현 수련회를 열었다. 김원우 기자

# 조계종 28기 행자교육원

16일 해인사, 142명 입학

조계종 제28기 행자교육원(운영위원장 현응)이 3월 16일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개원했다. 지난 2월 전국 교구본당사 권역별 행자교육을 이수한 행자 184명(남행자 122명, 여행자 62명) 가운데 입학감에 합격한 남행자 84명, 여행자 58명 등 총 142명이 17일 고불식을 치렀다. 23일간의 행자교육을 수료한 행자들은 4월 6일 고시위원회(위원장 법산스님)가 주관하는 5급 승가고시를 통해 종단 예비승인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다. 시험과목은 △사미·사미니율의 △사미·사미니위원 △초발심자경문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예식의예 △42장경 △조계종사 등 총 8과목이다. 조계종 기자

# 한국인 희생자 한국지원법요식

한일불교문화교류협, 28일 도쿄 우천사서

일본 도쿄 우천사에서 제2차 대전 당시 희생된 한국인 영령 위령 및 한국기원법요식이 열린다.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법장)와 일한불교교류협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는 3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도쿄 우천사 본당에서 한일양국대표단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대전 한국인희생자 영령 위령 한국기원법요식을 개최한다. 이날 위령제는 추념의식에 이어 양국 대표의 표백문 낭독, 헌화, 추모사, 평화기원문 채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한일국교 40주년기념 불교도우호친선회에서는 양국

대표단이 오찬을 함께하며, 2차대전 한국인 희생자 유골의 조속한 한국추진의 의의와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이후 양국 대표단은 산디카나와 프린스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의 이사장 홍과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한일 양국의 불교도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유골 분할문제를 논의한지 10년이 됐다”며 “한국인 희생자의 영혼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조속히 유골을 한국기원할 수 있도록 일본측과 함께 이번 대회에서 매듭짓는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동방불교대 홈페이지 오픈

dongbang.org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법장)이 3월 10일 홈페이지를 보완해 재오픈했다(사진). 새롭게 문을 연 동방대 홈페이지(dongbang.org)는 학사행정과 과운영, 재학생·동문 참여, 사이버강의 등의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보완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가 사이버상에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불교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불교뉴스, 법문검색, 불교용

어휘 등 불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적·출결관리를 온라인화해 실시간 조화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동문들의 참여공간으로 동문마당을 개설하여 학교 관련 공지사항을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우 기자

# “마이산 탐사 요사채 부지 금당사 경내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용우 대법관)는 2월 17일 진안 마이산 금당사의 임야 40여 평에 건립된 탐사의 요사채 철거를 요구한 소송에서 ‘마이산 탐사 요사채 부지는 금당사 경내지로 볼 수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문을 통해 “전통사찰 보존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경내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당해 전통사찰과 지리적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제1토지(탐사 경내지) 내에 있는 금당사 임야 40여 평은 원고(금당사)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토지로서 원고 사찰(금당사)의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라기보다는 소유권만 원고에게 있을 뿐 원고사찰의 경계 안에 있는 주요시설물들과 동떨어져 오히려 피고(탐사) 사찰에 인접하여 있어 원고의 경내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원우 기자

# 진각종 밀각장학회 첫 장학금 전달

진각종 밀각장학회(이사장 회정)는 3월 13일 밀각심인당에서 구자원(전북대 기계설계학과 3년)학생과 석현우(영덕대 사회복지학과 1년) 학생에게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한편 밀각장학회는 밀각심인당에서 수행 정진하다 열반한 고 수취주보살의 유지를 받은 가족들이 지난해 1월 불우한 소년·소녀가장과 불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1억 원을 기탁해 설립했다. 김원우 기자

##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공단등 (비단등)**

**중 등**

**팔모조립등**

**황금등**

**팔모접등**

**만월등**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